지역산업 융합화와 기업지원 강화

김 광 동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지역산업기획팀장)

Ⅰ. 배경

1. 필요성

최근 지역산업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전략산업 중심에서 특화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산업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산업기술과 환경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통한 산업 전반에 창출되는 파급효과는 특정 산업을 통한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각 지역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혁신주체자들의 긴밀한 유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오히려 산업 영역을 크게 확대하고 육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구축된 물적·인적인프라를 활용한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은 산업간 강한 연계와 융합을 통하여 가능하며,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융합(Convergence)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분리가 가능하지만 흔히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던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나의 요소로 수행되는 현상 또는 이러한 양상을 따르는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을 의미한다[1]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영역에서 IT, BT, NT 간 융합으로 다양하게 산업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정책으로 기업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융합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산업 간 연계라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고, 이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기업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자들의 역할이나 정책수립이 더딘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혁신주도의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동향

1) 산업융합트렌드에 부응하는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KIAT, 2010

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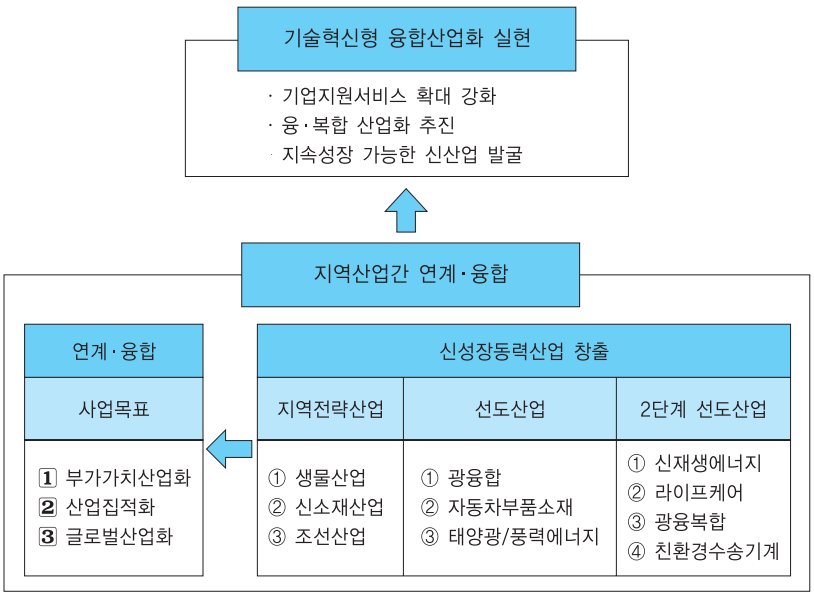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 간 연계를 보면서 산업의 영역과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지원 방향, 즉 융합화로 더 가속화되는 기업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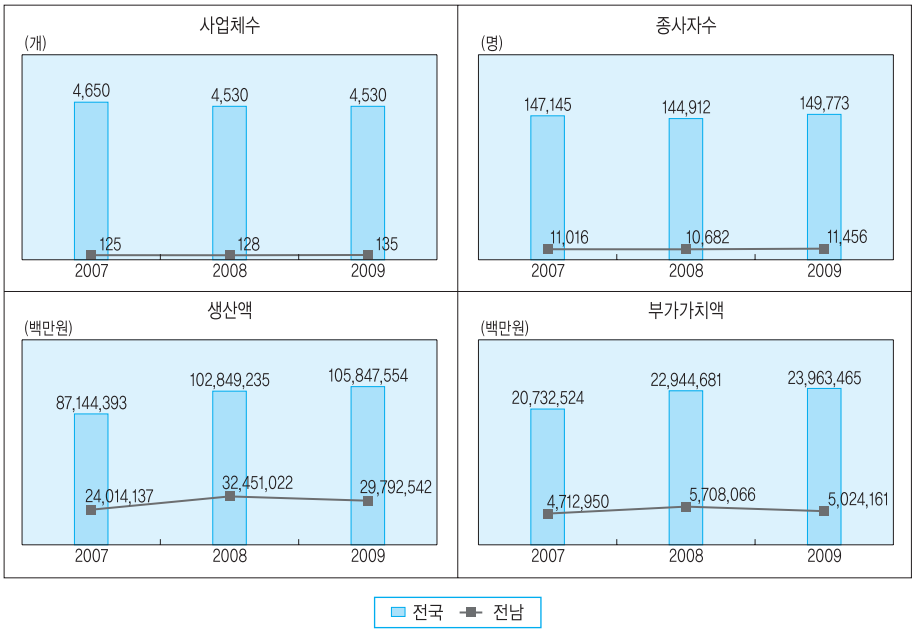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별 균형, 산업육성, 질적인 성장 요소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잠재력은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역산업 추진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요소들과 방안들을 찾아보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방안들이 혁신주체자들 간에 이야기되면서 지역산업체들이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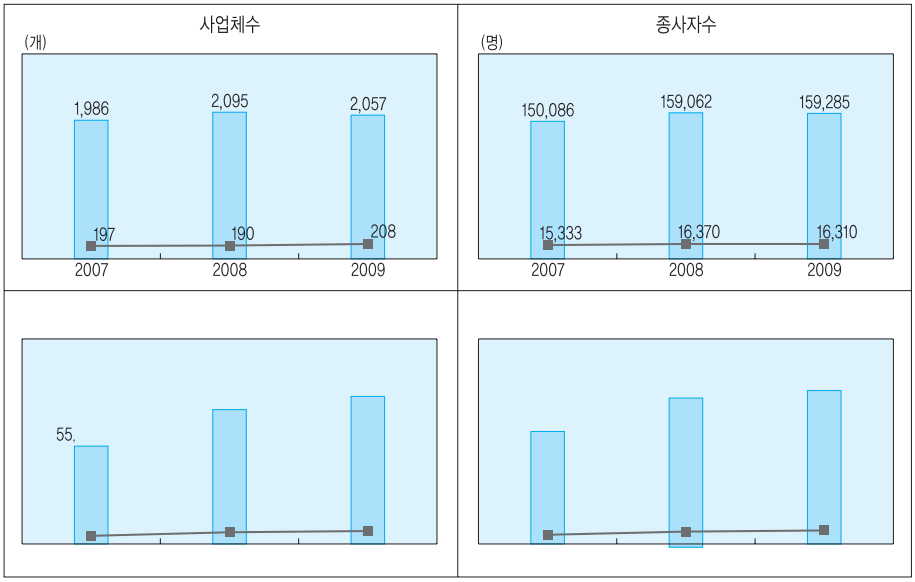
3.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 융합화에 대한 지역의 비전과



〈그림 3〉 전남 신소재산업의 전국 대비 주요지표 현황(2007~2009)





2. 전략산업 현황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전략산업으로 생물, 신소재, 조선에 대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7~2009년 동안 광공업 통계조사에 의해서 조사된 사업체수 증가, 종사자수 증가, 생산액 증가, 부가가치액 증가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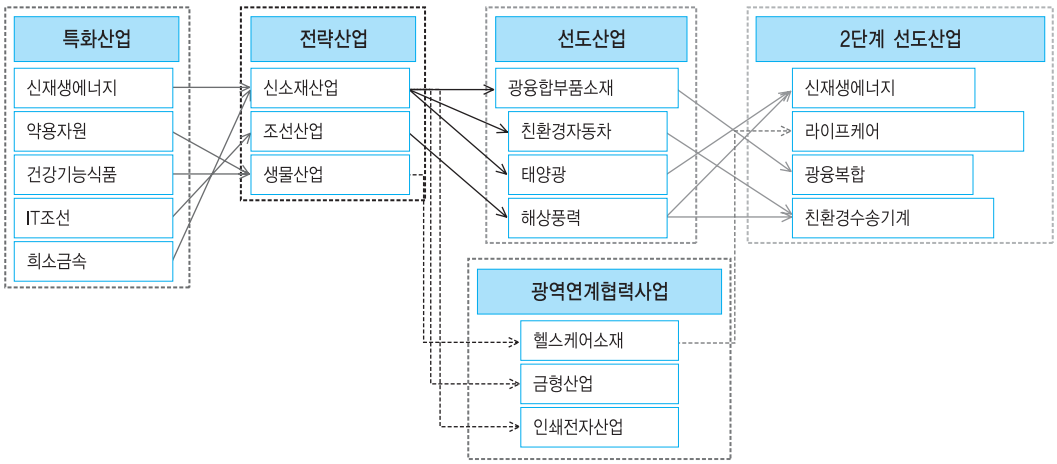
3. 산업 간 연계 현황

지역의 산업 간 연계는 긴밀하며, 기업지원을 위하여 단일 상담창구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내 기술기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기업역량 강화 및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업의 역량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성과 도출을 위해 6개 분야에서 지원을(시제품 제작, 컨설팅, 마케팅, 정보화,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② 사업통합 추진에 따른 중복성과 효율성 제고
③ 기구축 인프라 연계활용 촉진
④ 사업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기관 특성화
⑤ 지역사업 외 타사업 연계촉진을 통한 지역한계 극복
⑥ 추진사업 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융합화

〈그림 5〉 전략산업, 선도산업, 광역연계 협력사업 및 선도2단계 산업과 연계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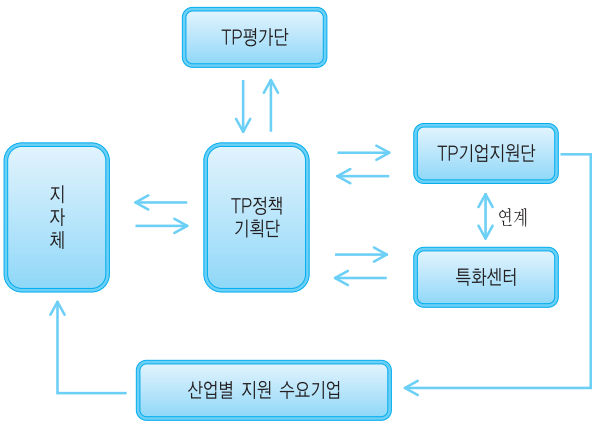
Ⅲ. 지역산업 융합화와 기업지원 방향

지역 거점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및 지역사업의 연계·조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산업 간 연계와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산업 간 융합의 중요성은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력의 낙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기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의회 성격의 조직을 연계·운영함으로써 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추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유도하고자 TP 중심의 기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 기업지원사업 현황

지역 내 기업지원 기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지원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인프라 및 R&D 사업과 연계하고 전략산업 및 선도사업과 광역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현장 애로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센터와 기업지원단이 강한 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가. 생물산업

- 생물산업진흥재단에서 각 센터별 기업지원사업을 재단사무국으로 통합운영하여 전남 생물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자립화 준비를 도모하고 있다.
- 기업지원 사업별 세부사업은 재단산하 각 센터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인력양성사업, 마케팅사업, 기술지원사업이 전남의 모든 생물산업 관련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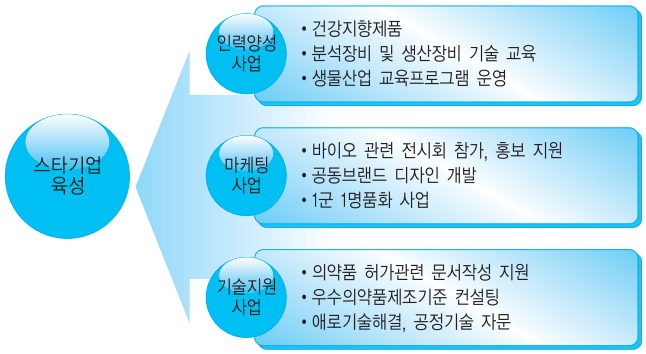
나. 신소재·조선산업

신소재·조선의 기업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기능적 통합 형태로 두 개의 산업이 통합되어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 인력양성

-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을 통한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
- 고용연계 예비인력 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외 유출 방지

〈그림 7〉 생물재단 기업지원 비전과 목표



- 기업 지식서비스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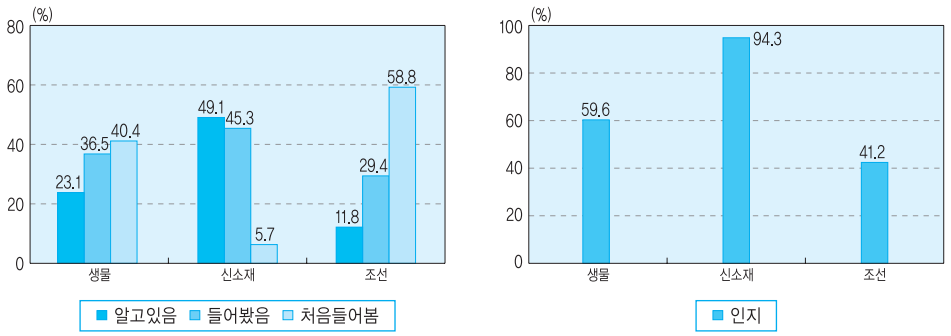
-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 마케팅 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소재·조선 기업의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 기술지원

- 분석 및 인증지원을 통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애로기술 해결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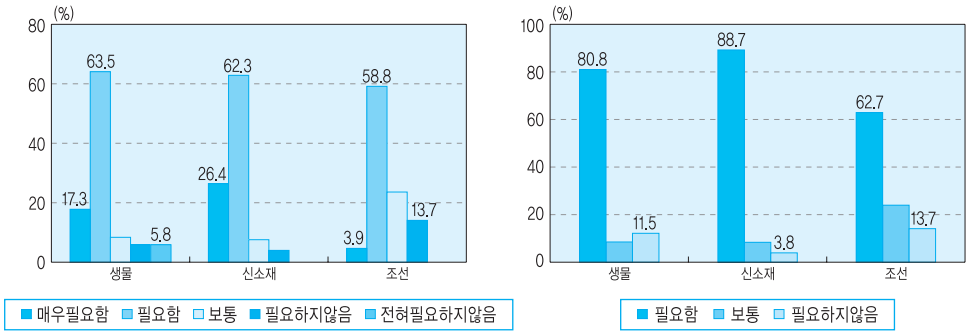
신소재·조선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은 전라남도의 신소재·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로

〈그림 8〉 융합에 대한 산업별 인지 수준



2) 전남 지역산업 융합화에 따른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브레인룰스, 2011

〈그림 8〉 지역산업의 융합의 필요성 조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장 애로 기술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지역산업융합 수요현황

전략산업에 대한 융합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2)]

전남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융합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 65.4%로 지역 상황에 비해 융합의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신소재산업에서의 인지수준이 전체 응답기업의 94.3%로 타 전략산업의 인지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기업의 77.5%가 ' 필요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9.6%의 응답기업만이 '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융합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융합화와 신기업 지원전략

□ 기술혁신 주도형

요소투입에서 기술혁신 주도로 전환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을 육성

□ 융합추구형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융합산업화로 지원하는 협력체계

□ 산업 간 연계형

지역산업 간 긴밀한 유대로 전략산업과 광역 및 선도산업 간 연계 산업화

□ 생태계 지원형

기업의 생태계 차원에서 수요자 중심적인 기업지원 강화로 연관산업 지원

Ⅳ. 정책적 제언

융합화에 대비한 기업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은 생산규모에 비해 생산량이나

부가가치가 낮아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의 영세성 및 기술 확보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나 기술력이 낮아서 열악한 산업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② 최근 융합을 통한 신기술·시장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육성정책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 그 활용의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이에 전남의 지역산업인 생물, 신소재,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동종, 이종산업 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형태와 시장가치를 창출하여 전남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육성해야 한다.

1.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전략

가. 기술지원

- 현실 직시적인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현장에 지원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현장에서 필요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다양한 정보교류로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또한, 산업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R&D는 클러스터 중심의 연계로 다극분산형보다는 기업집단형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 인력양성

-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인재양성, 재직자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적정 유지를 원하고 있으나 인력양성 지원은 필요인력의 적정 교육프로그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기업이 원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다양화하며 구체적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
-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요소기술과 원천기술을 구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좀더 활용가능한 지원내용이 될 수 있다.

다. 마케팅

- 기술지원과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수혜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매출액 증가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하지만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식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
- 단기적인 시제품 제작지원과 전시회 참가 정도 지원은 기업이 원하는 기업지원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며, 제품의 우수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지원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제품 제작지원에서 국내외 시장확대를 위한 방안들은 기업·산업 간 연계를 통한 시장개척 활동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기 구축된 인프라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① 지역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나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Bottom-up)을 실시하여 기업의 시장확대를 지원하고 제품의 인지도를 확대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품·공정에 융합 적용 중 애로사항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된 인프라활용을 지원하고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Ⅴ. 시사점

□ 지역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인식전환

- 지역제품에 대한 인지도 전환과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기본방향에서 출발한다. 산업 간 연계 및 융합화로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와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향 정립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제품과 서비스융합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서 산·학 간 연계를 긴밀하게 이어주고 있다.

□ 생산성 증대로 시장 확대

- 기술력과 인력의 부재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력 저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전략은 산업 간 연계로 개방과 융합을 우선시하여야 하고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상호 간 상생과 존중으로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융합은 일정기간의 시간을 요하며, 법적 규제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에 대한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기업들이 추구하는 시장확대와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

□ 일자리창출 극대화

- 지역사업에서 일자리창출은 기존 사업을 개선시키고 참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므로 구체적으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숨어있는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신사업만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의 기업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기업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향후 경제적인 효과를 추구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다수의 일자리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발되는 고용창출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성과관리

사업의 지속성, 성과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지역별로 기존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어느 정도는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존산업의 성숙은 경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지역 기업들은 생존경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지역별로 산업 간 융합은 기반기술 마련을 위하여 상호 간에 노력들은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강하면서 지속되고 있어서 자율형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보다는 단계별 신중한 대처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지원 강화

지역산업과 연계된 연관산업 간 기업지원은 처음부터 지원계획을 명백히 하여 생태계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절차는 기업 간 상호 간 생존을 위한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기술지원이 연계된 연관산업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술혁신 주도의 지원체계를 펼 수 있는 방향전환이 시급하다. KIET